소를 다그쳐야겠는가, 수레를 다그쳐야겠는가?

☞1면에서 계속

하루 종일 좌선만 하는 마조도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남악회양이 기왓장(벽돌)을 갈았다는 바로 그 자리 마경대다. 반석은 2평 남짓한 크기로 10도쯤 경사가 졌다. 반석 끝은 낭떠러지다. 졸다가는 낭떠러지 저편으로 곤두박질칠 것만 같다. 회양은 마조의 고지식한 좌선을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았겠지만 마조의 입장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현장을 보니 젊은 마조의 심정이 단박에 느껴진다. 비구름의 습기와 비안개에 젖은 반석은 미끄럽기조차 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치다.

그때 회양은 반야사(현 복엄사) 방장스님으로 많은 대중을 가르치고 있었고, 마조는 한주(漢州;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羅漢寺)에서 장강을 타고 내려와 반야사 산내암자인 전법원(傳法院)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반석에는 조원(祖源)이란 글씨가 붉게 음각돼 있다. 조사의 근원, 혹은 조사선의 발원지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형산의 수행승이 새겼을 것이다. 중국의 선승들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온 순례자들의 눈에도 조원이란 의미는 각별하고 심장하다. 통일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무려 여덟 문이 아래와 같이 마조의 문하에서 흘러와 개창된 까닭이다.

△실상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흥척(실상사) △동리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혜철(태안사) △가지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도의(보림사) △봉림선문; 마조도일-장경회휘-현립(봉림사) △성주선문; 마조도일-마곡보철-무염(성주사) △사자선문; 마조도일-남전보원-도윤(흥녕사) △사굴선문; 마조도일-염관제안-범일(굴산사) △희양선문; 마조도일-창주신감-도헌(봉암사)

더구나 화강암 반석에는 불을 일으키는 흰 빛깔의 부싯돌 두 줄기가 조(祖)자에 선명하게, 또 한 줄기가 원(源)자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다. 마치 선풍을 일으키는 빛살이 중생계를 향해 뻗어 있는 느낌이다. 수불스님이 먼저 발견하고 상징 삼아 말씀하신다.

"가장 굵은 줄기는 마조선이 백장 스님에게서 황벽과 임제로 이어진 임제종 같고, 조금 가는 줄기는 서당 스님과 남전 스님으로 뻗어간 법맥 같고, 희미한 줄기는 백장 스님에게서 위산과 앙산으로 이어졌다가 쇠퇴한 위앙종 같습니다."

스님은 마경대로 내려서며 기운이 약동하는 곳이니 좋은 기운을 더 많이 느껴야 한다며 순례자들에게 한동안 머물다 가기를 권유한다. 광산업을 하여 광맥에 일가견이 있는 금천거사도 '규석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뿌리에 큰 규석덩어리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거든다. 마경대로 내려서 표지석 뒷면 비문을 보니 이른바 공안이 된 마전작경(磨?作鏡)의 사연이 새겨져 있다. 〈마조록〉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훗날의 순례자를 위해 우리말로 대략 옮겨본다.

〈상전(相傳: 대대로 전함)에 의하면 당나라 때 촉(蜀; 사천성)의 스님 도일이 남악에서 수행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이 바위 위에서 좌선하고 경(經)을 외고 있었다. 그때 복엄사에 주석하던 회양이 이 광경을 보고 곧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종일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도일이 말하였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회양이 바로 이끼 낀 기왓장 하나를 들고 와서는 좌선을 하고 있는 도일 옆에서 바위에 소리가 나게 간바, 이로써 그를 깨우쳐 주고자 하였다.

도일이 곧 물었다.

"도대체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하려하십니까."

회양이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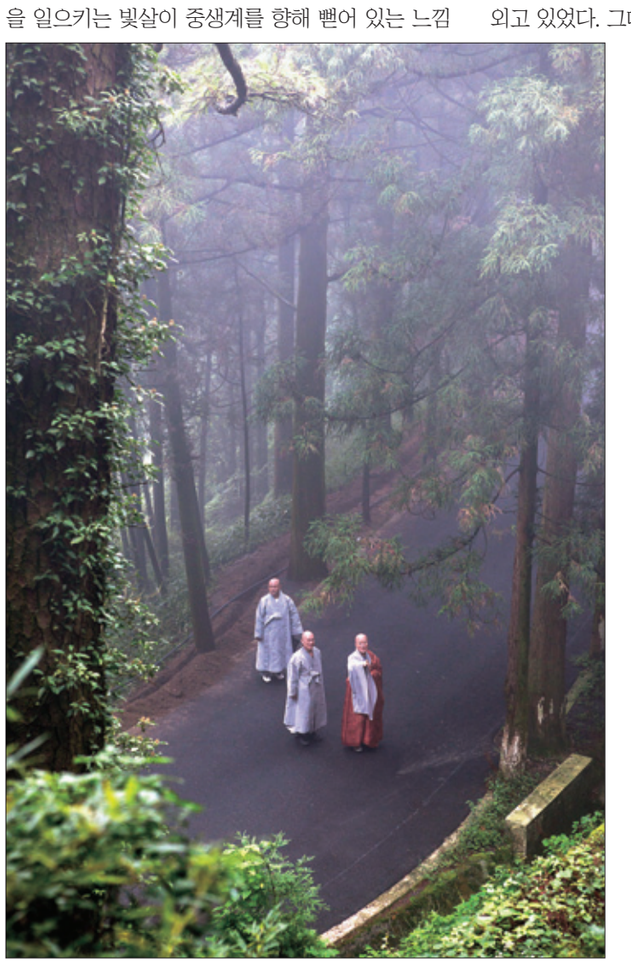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도일이 말하였다.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데 좌선해서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것인가?"

도일이 곧 깨닫고는 남악회양께 절하고 스승으로 모셨다. 이로부터 후인들이 이 바위를 가리켜 '마경대(磨鏡臺)'라 부르고, 바위 위쪽에 석두가 '조원(祖源)'이라 새겨서 회양을 기념하게 하였으며, 도일의 불법이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스님들이 복엄사 가는 길에 비구름 속에서 마경대를 올려다보고 있다.

> "도일이 곧 물었다.
> "도대체 기왓장을 갈아서
> 무엇하려하십니까."
> 회양이 대답하였다.
>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 도일이 말하였다.
>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마경대 반석에 조원(祖源)이란 글씨와 흰 부싯돌 줄기가 선명하다.

그런데 마경대로 내려선 수불스님은 석두희천이 '조원'을 새겼다는 것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남악에서 석두 스님의 위치가 어느 정돈데 직접 새기겠어요. 석두 스님은 마조 스님보다 연세도 아홉 살이나 많았어요. 석두 스님의 후손 중 누군가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사선의 발원지라는 마경대가 너무 허술해요.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성역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국선원에서 일조하고 싶네요."

한편 비문에는 회양이 마조를 깨우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회광반조의 장면이 빠져 있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소설이라면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없다. 〈마조록〉에서 뒷부분을 보충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일이 물었다.

"어찌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만일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를 다그쳐야겠는가, 아니면 수레를 다그쳐야겠는가."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지금 좌선을 익히고 있는 것인지, 좌불을 익히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혹시 좌선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선(禪)이란 결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며, 혹시 그대가 좌불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부처는 원래 정해진 형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머무르지 않는 법을 놓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되네. 그대가 혹 좌불을 익히는 중이라면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네. 보잘것없는 앉음새에 휘둘리게 되면 정작 깊은 이치에 이를 수가 없는 법이네."

도일은 환희심이 솟구쳤다. 그는 바로 회양에게 큰절을 올리고 나서 다시 물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무상삼매(無相三昧)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심지법문을 익히고 있는 것은 마치 스스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단비와도 같은 것이네. 그대에게 이미 기연(機緣)이 닿아 있으므로 꼭 도(道)를 보게 될 것이네."

"도는 원래 형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눈 속의 눈(心地法眼)으로 도를 보게 되지. 무상삼매도 마찬가지네."

"거기에도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습니까."

"변화의 개념으로 도를 보려 한다면 도는 결코 보이지 않네. 나의 게송을 들어보게."

마음 땅이 품은 여러 씨앗은
단비 올 때 하나같이 싹트네.
삼매의 꽃 원래 형상 없으니
피고 짐이 또 다시 있을까.
心地含諸種 遇澤悉開萌
三昧華無相 何壞復何成

이때 도일은 문득 개오하고 마음이 초연해졌다. 이후 그는 회양을 10년 시봉하니 나날이 그윽하고 깊어졌다.〉

마경대를 떠나며 수불스님이 상상으로 접근할 수밖에는 없는 〈마조록〉의 행간을 짚는다.

"마조 스님이 전법원에 머무는 동안 산책하면서 여기 바위에서 좌선도 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대중이 많은 데서 맨날 앉아 있어 봐야 방해만 되니까 산비탈 바위를 찾은 거지요. 반면에 회양 스님은 특이하게 생긴 마조 스님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놈이 뭐하는지 뒤따라 가보기도 했을 거구요. 그러다가 한번 방편을 뽑아 썼는데 그대로 꽂혀 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간 거지요. 깨닫게 할 적에는 수단이 아주 격렬할 수도 있고, 순하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지는 눈 밝은 사람이라야 아는 거지 눈 어두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마조의 특이한 외모는 〈마조록〉에도 '생김이 예사롭지 않았다. 소처럼 느리게 걷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예리하였다. 혀가 코를 덮을 만큼 길었고, 발바닥에는 두 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는 자꾸 회양의 자애로운 성품이 마음에 와 닿는다. 마조를 깨우쳐 주기 위해 헌 기왓장을 들고서 저 바위에 갈아댄 방편이 눈물겨운 것이다.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마음인 양 부싯돌과 기왓장이 부딪쳐 섬광이 일지 않았을까. 편견과 타성에 젖은 제자를 위해서 고함치거나 몽둥이질했을 법한데도 회양은 젊은 마조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 없이 기왓장을 갈아댄 것이다. 자비의 화신이 아닐까도 싶다. 부모가 일찍이 온화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한다 하여 그의 이름을 양(讓)이라고 지은 사실만 봐도 회양의 자비로움은 타고난 천품(天稟)인 것 같다. 옆에서 걷던 은암 김성부 시인이 〈마경대에서〉라는 즉흥시를 두런두런 읊조린다.

'마경대' 표지석, '조원'이 음각 된 암반 위
천년 세월 같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다.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솔잎 날리는 바위를
손으로 쓸며 축융봉 산허리를 감고 청솔가지
흔들며 내리는 조사의 법음을 경건하게 듣는다.
마경대 오르는 길이 높고 험하였지만
옛 선사의 법석에 늦을 새라 서둘러 온 길,
남악회양선사의 묘탑을 참배하며 마음에
담았던 생생한 가르침 긴 세월 그 때 그대로
형산 숲 벼랑 끝 마경대 도량 지키고 있다.
이제 '남악마전의 기연'을 바라지는 말자
남악 형산 오르듯 간절히 선지식 찾아 깨달음
얻으면 '평상심이 도'임을 절로 알리니,
마경대에 무릎 꿇고 미련한 소 몰아칠 채찍
찾지 않아도 솔바람 불어 형산에 쉬 오르려니.

나에게도 기왓장을 갈아주는 내 마음의 스승 회양이 있는지 문득 상념에 잠겨본다. 어느새 마경대는 비구름 속에 멀어지고 있다. 회양이 방장으로 주석했던 복엄사가 바로 눈앞에 있다. 학인이 도를 묻자, 선사가 눈앞에 길이 있다고 일갈했다. (계속)

글 정찬주, 사진 유동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약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약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